

북

Books

절대권력의 휘장 뒤에 펼쳐진 음모·쟁투·질시의 파노라마

후비(后妃) - 황제를 지배한 여인들

상관평 지음 한정민 옮김

중국을 지배한 것은 황제였지만 그 뒤에는 무수한 '여인'들이 있었다. 왕의 아내인 후비(后妃)들이 그들이다. 황제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빼어난 미모를 지닌 후비들은 남성 못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며 친하를 호령했다.



중국 후비의 수는 황제의 수백 배에 달했지만 역사에는 대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지나치게 많은 후비들의 존재와 추행은 궁중의 어두운 면이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국내에 '중국사 열전' 시리즈를 읽거나 소개하고 있는 중국 저자 상관평의 '후비·황제를 지배한 여인들은 봉건 사회의 특수한 신분이었던 후비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후비들은 황제의 총애를 받으려 서로 질투하고다. 뛰어난 미모를 지녔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 나라를 망치기도 한다. 심정을 통해 정권을 놓았던 후비들은 역사의 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후비들의 권력 투쟁과 생존 경쟁은 중국의 거의 모든 황조의 후궁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후비들의 역사는 중국의 봉건제도와 그 시대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저자는 각 왕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비교적 역사적 기록이 풍부한 후비들만을 골라 그들의 일생을 제치고 황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궁세를 끌고 있던 집안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남송 이종 조윤의 황후 사도청은 뜻생긴 외모로 유명(?)하다. 사도청은 괴부가 겸고 거칠었다고 한



중국 황실의 후비는 중국의 정치 상황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다. 사진은 중국 황실의 사랑을 소재로 한 영화 '황후화'의 한 장면.

특히 평민 출신의 절세 미인이 후비가 돼 한순간에 귀한 신분으로 바뀌는 과정이 흥미롭다. 소, 돼지를 도살하던 백성은 중국 역사상 가장 비천한 직업 중의 하나였는데 세 명의 후비가 백정의 딸이었다. 후한 영제 유광의 황후 하씨, 진나라 혜제 사마충의 아내 사구, 송 명제 유목의 귀비 진묘 등이다.

후비가 되기 위해 뇌물로 관리를 매수해 궁에 들어갔고(하씨), 직접 미녀들을 찾기 위해 민가를 뛰어다니고(진묘), 직장 미녀들을 찾기 위해 민가를 뛰어다니고(하씨), 직장 미녀들을 찾기 위해 민가를 뛰어다니고(진묘) 등이다.

하지만 후비들이 모두 아름다워 것은 아니다.

추한 외모 때문에 황제로부터 외면받았던 후비들도 많았던 것, 미모가 빠어나지 않은 여인들이 미인들

을 제치고 황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궁세를 끌고 있던 집안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남송 이종 조윤의 황후 사도청은 뜻생긴 외모로 유명(?)하다. 사도청은 괴부가 겸고 거칠었다고 한

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재상이었기 때문에 황후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외면하고 다른 후궁들을 총애하는 왕을 곁에 두고 평생을 살아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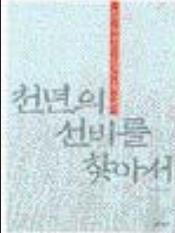
후비들은 권력의 중심에 섰지만 대부분은 바람 앞의 죄불처럼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신세로 살아야 했다. 봉건사회 여성의 지위가 남성(남편과 아들)에 의해 정해졌고, 후비를 또한 남자들의 흥망성쇠에 따라 삶과 죽음을 함께 해야 했기 때문이다. 와석의 세력을 배척하기 위해 왕이 죽으면 후비를 함께 죽이거나 순장하기도 했다. 명나라 후궁 이었던 조선 후비와 여자들이 죽은 황제를 따라 순장되는 과정 등도 눈길을 끈다.

한편 상관평은 지난 1월 중국 역사 583명의 일화를 담은 '황제·제위의 찬란한 유혹'을 국내에 소개하기도 했다. <달팽이·2만원>

/오픽록기자 kroh@kwangju.co.kr

천년의 선비를 찾아서

이성원 지음



'사이버 제사'까지 등장한 요즘 시대에 도포 쓴 어른들과 함께 1년에 수십차례 제사를 지내는 종택에서의 삶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을 있다.

특히 퇴계 이황 등 수많은 학자를 배출, 선비의 고장으로 불리는 안동에는 이들을 모시는 종손과 종부가 생활하는 종택이 47곳이나 된다.

조선 중종 때의 문신인 농암 이현보(1467~1555)의 17대 종손 이성원이 쓴 '천년의 선비를 찾아서'는 왜 안동에는 종택이 많이 남아 있는지, 선비 정신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저자는 '21세기에 유가적 전통을 지키며 사는 종

손의 책무가 버거워 한때 방황도 했었지만 이제는 그 '선비정신'에 매료돼 유가적 삶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책은 다양한 선비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이 선비정신인가를 보여주고 안동 문화의 핵심인 종택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출렁한 인물'의 출현은 종택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훌륭한 조상'은 본받고자 하는 후손들의 노력 때문에 '한국의 정신문화의 수도'로 불리는 지금의 안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6·25 당시 불타버린 성재 금남수(1530~1604)의 종택을 복원하기 위해 그의 후손들이 이불과 식량을 짊어지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 1년 동안 종가 복원에 힘썼다는 일화를 통해 안동 사람들이 조상을 섬기고 전통 보존을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도 알수

있다. 유일재 김언기(1520~1588)의 종부인 이후옹 여사를 통해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유일재의 꽃꽂함도 느껴볼 수 있다. 벼슬에 연연해 하지 않았던 후조당 김부필(1577~1644)의 고매함은 그의 종택에서도 드러난다.

세상 풍파를 뚫고 지나온 종택의 전통을 꽃꽂이 계승해온 종손과 종부의 간인함과 역사와 세월을 아우르는 꽃꽂한 자존심은 바로 선비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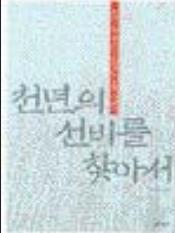
책은 현대인들에게 '훌륭한 사람 되기'와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선비정신을 전해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깨워 준다.

<푸른역사·1만5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안동을 거닐며 듣는 종택과 선비 이야기

이성원 지음



책은 다양한 선비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이 선비정신인가를 보여주고 안동 문화의 핵심인 종택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출렁한 인물'의 출현은 종택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훌륭한 조상'은 본받고자 하는 후손들의 노력 때문에 '한국의 정신문화의 수도'로 불리는 지금의 안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6·25 당시 불타버린 성재 금남수(1530~1604)의 종택을 복원하기 위해 그의 후손들이 이불과 식량을 짊어지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 1년 동안 종가 복원에 힘썼다는 일화를 통해 안동 사람들이 조상을 섬기고 전통 보존을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도 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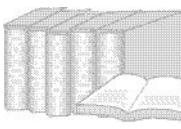
있다. 유일재 김언기(1520~1588)의 종부인 이후옹 여사를 통해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유일재의 꽃꽂함도 느껴볼 수 있다. 벼슬에 연연해 하지 않았던 후조당 김부필(1577~1644)의 고매함은 그의 종택에서도 드러난다.

세상 풍파를 뚫고 지나온 종택의 전통을 꽃꽂이 계승해온 종손과 종부의 간인함과 역사와 세월을 아우르는 꽃꽂한 자존심은 바로 선비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현대인들에게 '훌륭한 사람 되기'와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선비정신을 전해주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깨워 준다.

<푸른역사·1만5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새책

2008 신춘문예 당선동화=광주일보 2008 신춘문예 동화부문 당선작인 김순아의 '고슴도치의 삶'을 비롯해 강원일보, 경남신문, 국제신문, 대구매일, 대전일보, 동아일보, 무등일보, 문화일보, 부산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13개 신문사의 2008년 신춘문예 동화 당선작을 한데 엮었다. <동쪽나라·9천500원>

그래도 사랑이다=시인 천양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삶의 경험을 모은 산문집. 한반뿐인 삶,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준다. 꽃과 새를 주로 그려온 화가 김일화의 그림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생각의 나루·9천800원>

부모가 학교다=독일의 작은 공동체 마을인 부르더호프 공동체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가 전하는 자녀교육법. 아이 양육에 관해 조언을 구했던 부모들로부터 받은 수백 통의 편지와 교사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펴냈다. <달팽이·9천800원>

중국 근대의 풍경·화보와 사진으로 읽는 중국 근대의 기원=문정진 등 중국문화과 중국 문화사 전공 학자 8명이 근대 중국의 사회상을 분석했다. 청나라 말기(1844~1898년)에 발행된 중국 최초의 근대 그림신문인 '점설헤화보'에 실렸던 당시 중국을 그린 동·서양의 회화와 사진들도 함께 수록됐다. <그린비·3만5천원>

이별 찾은 시절='페미나 삼'·'알베르 카뮈 삼' 등 프랑스 문학의 권위 있는 삼을 석권한 작가로 제그리네(89)의 소설집. 미모의 간호사와의 농담에 정신이 팔린 인턴의사에게 마취도 못한 채 상처 봉합 수술을 맡긴 늙은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한 시간 동안의 바느질' 등 모두 10편의 단편이 실렸다. <현대문학·1만원>

두 개의 눈을 가진 아일랜드=임진영 영화감독의 음악 다큐멘터리 '두 개의 눈을 가진 아일랜드'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와 풍경을 담았다. 아일랜디시 음악 밴드인 '두 번째 달·바드(BARD)' 멤버들과 함께 지난해 여름 떠난 아일랜드 음악 여행 이야기다. <위즈덤 퍼플·1만2천원>

혁명의 시간=러시아 혁명 120일 결단의 순간들=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의 10월 혁명을 다룬 연구서. 볼셰비키 당의 집권 요인을 음모적 성격과 철저한 권위적 위계에서 찾던 서구의 보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혁명이 눈 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르포르타주 문학 형식을 빌려 혁명을 보여준다. <교양인·2만9천원>

나폴레옹 놀이=독일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크리스토퍼 하인의 범죄 소설. 시시각각 삶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지루함'에서 벗어나고자 생의 매순간을 '놀이' 하듯 살아가려 했던 어느 인텔리 번호사의 낯선 행적을 냉소적인 유머로 표현했다. <작가정신·1만원>

연필로 고래 잡는 글쓰기='우아하고 감상적 인 일본야구' 등 독특한 소재와 톡톡 뛰는 상상력으로 수많은 독자층을 확보한 다키하시 겐 이치로가 기초부터 실전까지 여덟 단계에 걸쳐 글쓰기 방법을 소개했다. <웅진 지식하우스·1만원>

법원 경매 전문회사 - 암시카는 사람-

(법원 경매입찰장 입)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육선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분석·변도·유치권·여의·설립·부여·부활·기상·부동산
예고등기·선순위·기동권·기처분·기장임차인 등 차별화된
상담을 기다립니다. (평으로 한화전 10×3025)

▶ 주택 대표이사 010-3666-8446

소재지 면적 대/전 갈망가 최저가

농경지 10~20.65 774만 542만

금당지 25~55.4 9018만 8312만

우산동 대지 10~20 1920만 544만

우산동 대지 11~20 2910만 19500만

신수동 191/20 8만 35~36만

신수동 11/12 102만 19~20만

문화동 대지 18~20 195~200만 85~95만

문화동 대지 21~22 29~30만 10~12만

문화동 대지 23~24 39~40만 15~16만

문화동 대지 25~26 59~60만 25~26만

문화동 대지 27~28 79~80만 35~36만

문화동 대지 29~30 99~100만 45~55만

문화동 대지 31~32 129~130만 55~65만

문화동 대지 33~34 159~160만 75~85만

문화동 대지 35~36 199~200만 95~105만

문화동 대지 37~38 239~240만 115~125만

문화동 대지 39~40 279~280만 135~145만

문화동 대지 41~42 319~320만 155~165만

문화동 대지 43~44 359~360만 175~185만

▶ 아파트 대표이사 010-3666-8446

소재지 면적 대/전 갈망가 최저가

화정동 대지 10~20 104~105 51~52만

화정동 대지 21~22 145~146 75~76만

화정동 대지 23~24 185~186 105~106만

화정동 대지 25~26 225~226 145~146만

화정동 대지 27~28 265~266 185~186만

화정동 대지 29~30 30